

Bond Market Comment

Fixed Income / Global

수석연구위원 백윤민

3771_9175

yoonmin1983@iprovest.com

5월 금통위: 가장 급한 것은 성장 리스크 대응

5월 금통위, 기준금리 2.50%로 25bp 인하 (만장일치)

2025년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로 25bp 인하 (만장일치). 대내외 정치, 통상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성장 위험이 크게 확대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

수정경제전망: 안정적인 물가와 확대된 성장 위험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1.9% 유지)와 내년(1.9%→1.8%)도 물가상승률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2025년 1.5%→0.8%, 2026년 1.8%→1.6%)는 1분기 역성장과 높아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 한은은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반면에 성장률은 내수 부진 완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이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8월), 연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은 2.00% 유지

5월 금통위는 통화정책 결정, 수정경제전망, 포워드 가이던스 등에서 대체로 당사의 예상에 부합. 당사는 3분기(8월) 추가 인하를 포함해, 연내 최종 기준금리 수준 전망을 2.00% 유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구조적 리스크를 포함해 국내경제의 성장 하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좀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

추가적인 금리인하 시점에서 대해서는 7월 보다는 8월이 좀 더 유력하다고 판단. 전술했듯이,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통해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성장 경로에 대해서도 높은 불확실성을 언급한 만큼, 당분간 통화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은 성장 하방 리스크 대응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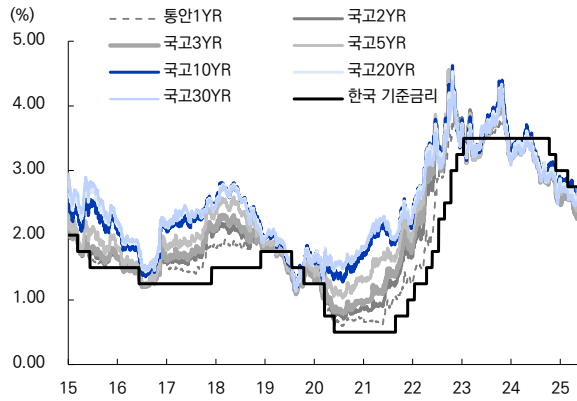
다만, 금일 기자회견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정부 재정정책과 연준과의 내외 금리차 확대, 환율 및 가계부채 등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속도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판단. 또한 금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중지시키는 등 미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연속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판단

[도표 1] 통화정책방향결정문 비교

구분	2025년 5월 통화정책방향결정문	2025년 4월 통화정책방향결정문
기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2.50%로 25bp 인하 (만장일치) -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2.75%로 동결 (신성한 위원, 기준금리 25bp 인하 소수의견) -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4 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세계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였으나,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반락.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가 상호관계 유예 등으로 일부 반등. 미국 장기 국채금리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급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다.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
국내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4 분기 역성장애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이어감 -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전망치(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 향후 성장경로에는 무역협상 전개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 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악화.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지속 - 앞으로 내수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감.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중 2.6%로 전월(2.8%)보다 하락 - 물가상승률은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 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예상.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각각 2.1% 및 1.9%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감.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 (2.7%)을 유지 - 물가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 (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등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 받아 등락.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통화 강세 등으로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 주가는 기업 실적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 주택가격은 서울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여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정책 및 중국의 대응,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 받으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반락. 주가는 경기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 후 일부 반등하였으며 장기 국고채금리는 상당폭 낮아짐 -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가격 오름세 및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원화 기초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원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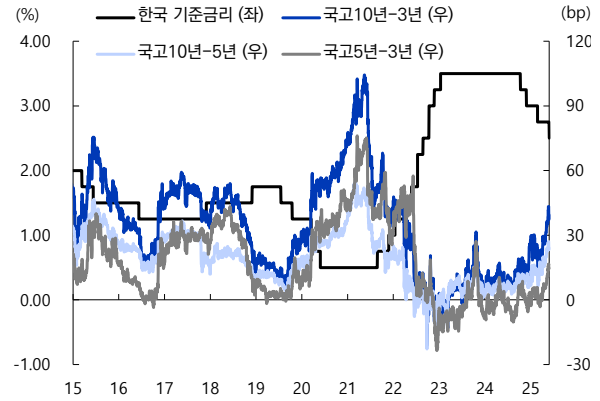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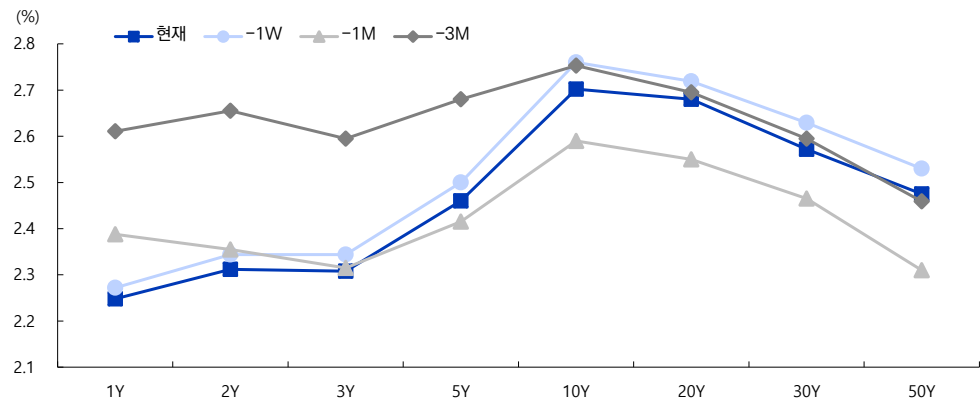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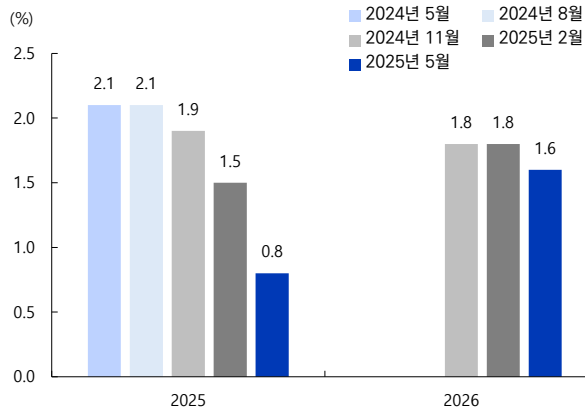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한국 기간별 일드 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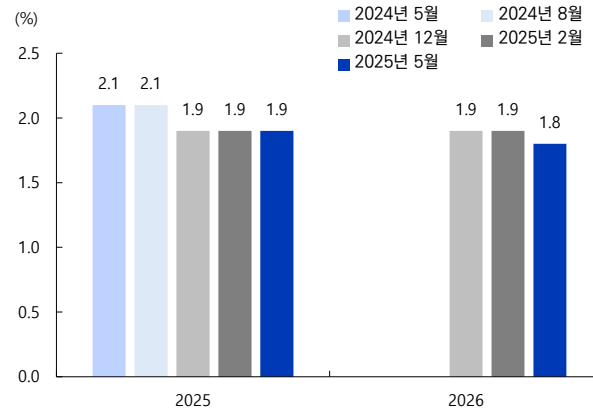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한국은행, 국내 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전망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5월 금통위 기자회견담회 Q&A

Q. 시장은 5월 금리 인하를 이미 기정사실화해왔으며, 현재 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하 시기와 폭에 집중되고 있음.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궁금함. 시장에선 하반기 최소 두 차례 인하 전망이 우세한데, 현재 제시된 0.8% 성장률 전망에는 이러한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되는지?

A. 3개월 내에 조건부 기준 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음. 먼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4명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점하면서 추가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음. 반면에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본 2명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신정부 경제정책 등을 좀 더 지켜본 후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아울러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반드시 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 전망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임. 다만 3개월 이후 금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밝히는 것은 향후 정책 결정과 혼동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음. 따라서 최종 금리 수준이나 인하 횟수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의 입장을 밝힐 수 없음

Q. 한은조차 0%대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신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1%대를 웃도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한은은 추경으로 인한 성장 리스크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A. 0.8% 성장률은 분명 낮고 어려운 상황임. 하지만 해당 수치에는 상방과 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함. 특히 2026년 성장률은 1.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 신정부의 재정정책, 금리 인하 효과,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음. 재정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 전망 (0.8%)에는 1차 추경만 반영돼 있고, 2차 추경은 반영되지 않음

Q.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A.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음.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 한은은 원칙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반대하지 않음. 다만,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체제이기 때문에, 비은행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것

Q. 성장률 전망치가 0.8%이면 금융위기 수준인데, 25bp 인하에 그친 이유는? 올해 성장률이 0.8%보다 더 하락할 경우, 기준금리가 1%대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A.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2008년의 0.8%와 지금 0.8%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당시 잠재성장률은 3% 수준이었고, 지금은 고령화 등 영향으로 2% 이하로 낮아졌음. 또한 한국 경제는 여전히 특정 수출 업종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폭이 큼.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커진 상태라고 판단함. 다만, 현재 중장기 금리는 충분히 하락해 금융여건은 완화적이고, 시중 유동성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 코로나 당시의 정책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 만약 성장률이 0.8%보다 더 낮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건부 대응이 필요함.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경우 당연히 금리 인하 속도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임. 실제로 이번 전망치(0.8%)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2월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보며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Q. 통방문을 보면 4월에도 내수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2분기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히 반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 현재 수출과 내수가 어떤 흐름인지? 두 번째로, 한미 환율논의가 진행 중인데, 미국이 원하는 것인 무엇인지 확인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음.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실물 경기가 급락하면서 빠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새 정부와 통화정책 공조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지?

A.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 1.6%로 전망. 계속 강조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큼. 매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수 전망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움. 작일까지의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올해 성장률 0.8% 중 내수가 전부를 기여하고 순수출 기여도는 0으로 가정했음. 관세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그 영향은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순수출 기여도는 -0.3%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내수 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 건설경기 역시 하반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 경우, 내수 기여도는 1.9%로 순수출 기여도를 감안해 내년도 성장률을 1.6% 정도로 가정. 다만 이 모든 수치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이며,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 가능성이 있음. 환율에 관해서는, 환율 방향과 미국과 어떤 협상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음. 추가 금리 인하와 관해서는,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자산가격을 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경우는 실질경기 회복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다음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4명의 위원과, 동결에 무게를 둔 2명의 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영향을 주시. 새 정부와의 정책 관계에 대해서는, 금리정책이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공감을 형성하길 바람

Q. 금일 금리 인하로 한미금리차가 더 확대됐지만, 하지만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나오는 상황임.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또한 과거에는 계엄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30원 이상 상승했다고 언급하신 바 있음. 그렇다면 현재 환율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지?

A. 1400원대 중반 수준까지 올랐던 당시 원화 약세는, 경제 펀더멘털보다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판단했음. 그 과정에서 원화는 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돼 있었고,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즉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더 빠르게 절상된 측면이 있음. 현재 환율 수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님.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계엄 이전인 2024년 11월 수준으로 되돌아왔음. 따라서, 환율에 정치 요인이 주요 변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

Q. 올해 성장률에 내수가 다 기여했다고 보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수가 회복될 점을 보셨는지?

또한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A. 내수 회복이라고 했지만 강건한 회복은 아님. 민간 소비가 -0.15%, 건설은 -0.4% 정도로 4분기 연속 감소. 수출도 -0.2%를 기록. 성장률을 0.7% 구성을 보면, 수출 기여도가 0.2%, 나머지 0.5%는 내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면 됨. 2월에서 4월 사이 성장률 전망을 조정할 배경에는 관세 영향뿐 아니라 내수 둔화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최근 2년간 성장률의 가장 큰 발목은 건설 투자 부진. 건설 부문이 부진한 이유는,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과도한 주택 공급이 있었고, 이후 PF를 통해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런 상황은 올 하반기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민간소비는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건설경기도 과잉 공급 해소 국면이 끝나며 하반기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음

Q. 환율 방향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셨지만, 4월 통방문과 비교해보면 고려 요인 중 '가계부채'와 '환율 흐름' 대신 '금융안정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음. 이는 단지 예측이 어려워져 표현을 달리하신 것인지 궁금함

A.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외환 시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 마시길 바람. 최근 원화 환율은 과도한 절하 국면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우려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지금은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에,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임

Q. 미국채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통화정책 또는 우리나라 시사점이 뭔지.

A. 미국채 장기금리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게 확대된 재정지출과 그로 인한 부채 누적이 핵심임. 2010년대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고, 발행금리는 제로에 가까웠음. 코로나 이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 모두에 해당되는 현상임. 이자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정책이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음. 실제로 며칠 전 있었던 일본 국채 입찰 부진도 글로벌 금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줬음. 최근 미국 예산안 협의 등 재정 관련 이슈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음. 이제는 시장이 전세계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판단됨.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봐야 함

Q. 1% 기준금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1%대도 염두에 뒀야 하는 상황인지?

1% 기준금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발언은 3년 전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처럼 기준금리가 장기간 1%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낮다고 봤음. 현재도 그 판단은 유지하고 있음. 다만 질문의 의도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을 1.6%로 상향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단기적으로는 경기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하겠지만, 1%대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국면이 다시 오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봄

Q. 미국의 4월 CPI가 둔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고 보고 조기 금리 인하 기대도 생기고 있음. 연내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또 미국이 인하한다면 한국 금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A. 미국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이긴 하나, 관세 정책의 영향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 향후 흐름은 예측이 어려움. 최근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어,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판단함. 미국 금리가 한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2년 전에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음. 당시에는 한미 금리차를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지금은 시장 기대, 달러화 흐름 등에 따라 자율적인 정책 운용 여지가 커졌음.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 금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룬이 더 커졌다고 판단

■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서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서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